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9. 5.(월) 16:15 < 9.6.(화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9. 5.(월)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승헌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수 (044-203-5653)

산업부장관, 방한 미 의원단에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려 제기

- 외교위 소속 하원의원 3인 등 미 하원의원단에 한국측 우려 조속 해결 필요성 제기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**은 9.5(월)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(외교위, 세입위, 군사위 등)과 면담을 갖고 **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관련 우려를 제기**하는 한편, **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**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< 면담 참석 하원의원(9인) 명단 >

성명	정당/지역구	소속위원회
Andy Barr	공화/켄터키	외교위 등
Darrell Issa	공화/캘리포니아	외교위 등
Claudia Tenney	공화/뉴욕	외교위 등
Stephanie Murphy	민주/플로리다	세입위, 군사위 등
Scott Franklin	공화/플로리다	군사위 등
Kaiali'i Kahele	민주/하와이	군사위 등
Joe Wilson	공화/사우스캐롤라이나	외교위, 군사위 등
Michael Waltz	공화/플로리다	군사위 등
Kat Cammack	공화/플로리다	국토안보위 등

□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**인플레이션감축법(IRA)**과 관련하여, 동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,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, **전기차 세제혜택 조항**이 **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**하고 있어 **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**으로, **양국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**하다고 강조하였다.

○ 우선, 동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**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**가 있고,

○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·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,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**차별적 조치**가 도입되어 **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**된다고 설명하였다.

○ 또한, 최근 우리 기업들의 **활발한 대미 투자**가 이루어지고 있는바, **상호 투자협력 강화**를 위해서는 **불확실성을 제거**하고 **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**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
□ 이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**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바,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신설**하여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,

○ **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**하였다.

○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정부합동대표단(8월말)이 이미 미국을 다녀왔고, **본인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에 訪美**할 예정인 바, 미 정부 및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